



새로운 고객 서비스로 컬러매니지먼트 활용



컬러에 대한 그들만의 전문성을 통해 새로운 고객 서비스로 컬러매니지먼트를 활용하는 유럽지역의 잉크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다.

컬러매니지먼트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 시작

최근 몇 년 동안 잉크 공급업체들은 인쇄업체가 요구하는 컬러 일관성을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유의 컬러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전문영역으로서 컬러매니지먼트 서비스와 장비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컬러매니지먼트의 활용은 유럽에서의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방책이 된다.

지금 잉크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들은 전문 컬러매니지먼트 회사를 비롯해 피그먼트 제작업체 및 인쇄기 제작업체들과 공유하는 공급망(유통업체들) 속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성장하는 컬러매니지먼트 시장에는 적용 가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인쇄업체들에게는 경쟁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인쇄기를 통한 프리프레스 장비를 운영할 때 적용되는 컬러매니지먼트 규격(standards)의 확산도 고려해야 한다.

잉크 및 용지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집중

컬러매니지먼트는 프리프레스에서부터 인쇄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쇄 공정에서 필요하다. 컬러매니지먼트 마케팅을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잉크 제조업체들은 모든 인쇄 공정의 어느 섹션에 목표를 뒤야하는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소재한 플린트그룹의 매엽인쇄 기술서비스팀장인 에리히 프랭크(Erich Frank)는 “인쇄업체들은 지금 컬러매니지먼트에 대해 이해해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다”며 “그들은 각각의 잉크와 용지의 결합이 컬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프리



“ 효과적인 컬러매니지먼트는 모든 제품 라인에서 컬러를 측정하는 통합 시스템을 요구한다. 교정기의 잉크젯 잉크와 인쇄기 잉크 사이의 차이점은 모니터 컬러뿐만 아니라 잉크, 종이 및 플라스틱 재질에서의 특성을 고려하는 인쇄업체의 장비 사용을 필요로 한다.

프레스와 인쇄 공정 사이에서 컬러 일관성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잉크업체들은 주로 인쇄업체들이 잉크 및 용지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컬러 품질 문제에 집중한다. 이 분야에서 잉크업체들은 고유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팬톤(Pantone), 그레탁맥베스(GretagMacbeth), 엑스라이트(X-Rite)와 같은 컬러매니지먼트 전문업체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독일 시그부르크 지역에 소재한 시그위크드루크파르벤(Siegwerk Druckfarben)사의 운전오프셋 기술이사인 울프강드 조스텐(Wolfgang Josten)은 “잉크 제조업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잉크 구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전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테스트 프린터에 알맞게 인쇄하는 방법 등을 더욱 많이 공부했다”고 말했다.

디지털화가 인쇄공정에서의 확장 도와

컬러매니지먼트 서비스 수요는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품질 향상을 원하는 인쇄업체들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

동력을 얻는다. 컬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제어방법은 인쇄비용을 절감하고 마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교정에서의 특별한 기술진보로 대변되는 디지털화는 프리프레스 영역으로 투입되는 컬러 매칭 시스템의 개발을 가속화했다. 사용자 편의의 분광 광도계, 농도계, 색도계 및 기타 측정 장치들의 발달은 인쇄 공정에서의 컬러매니지먼트 확장을 도왔다.

효과적인 컬러매니지먼트는 모든 제품 라인에서 컬러를 측정하는 통합 시스템을 요구한다. 교정기의 잉크젯 잉크와 인쇄기 잉크 사이의 차이점은 모니터 컬러뿐만 아니라 잉크, 종이 및 플라스틱 재질에서의 특성을 고려하는 인쇄업체의 장비 사용을 필요로 한다.

인쇄기 제조업체들은 인쇄기가 가동되는 동안 색도계 수치를 읽을 수 있도록 인쇄기에 부착된 분광 광도계, 농도계, 기타 측정 장치들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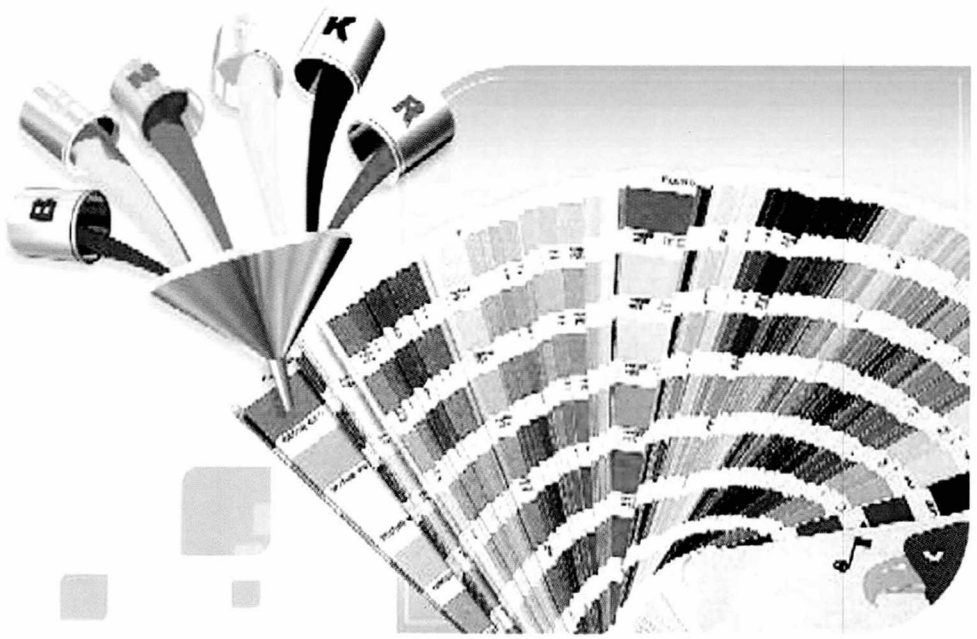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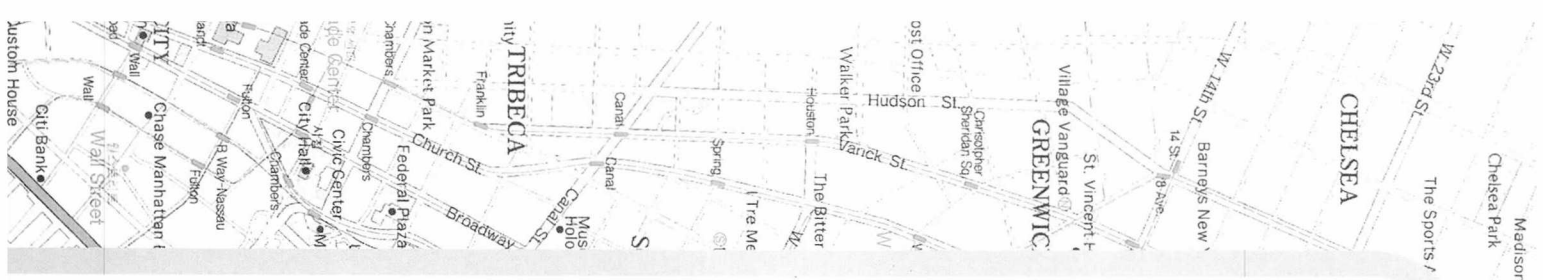
몇몇 인쇄업체들은 충분하진 않지만 컬러 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로써 비즈니스에서 통용되는 운영 시스템과 실제 작업 사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 컬러매니지먼트는 완벽한 공정 제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잉크 회사에 의존하는 인쇄업체

인쇄업체는 그들이 원하는 컬러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업체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잉크 공급업체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플린트그룹이 고객 인쇄업체 전 생산망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왔고 그를 통해 인쇄업체 직원들이 컬러매니지먼트의 복잡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관련된 좋은 사례다.

플린트그룹의 기술담당인 프랭크는 “우리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며 “컬러매니지먼트의 실제 활용을 처음으로 도입한 대형 인쇄업체들은 벌써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아직도 컬러 규격화에도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그워크의 윤전 오프셋 비즈니스 유닛은 ISO의 기본 규격에 대한 잉크의 색조, 투명성, 컬러 강도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스텐 기술이사는 “기본 규격은 다른 용지의 등급에 대한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잉크 유형과의 비교를 포함한다”라며 “인쇄업체들의 장점은 스스로 취합하기 어려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 규격 규정은 고객들에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각의 종합 컬러매니지먼트 서비스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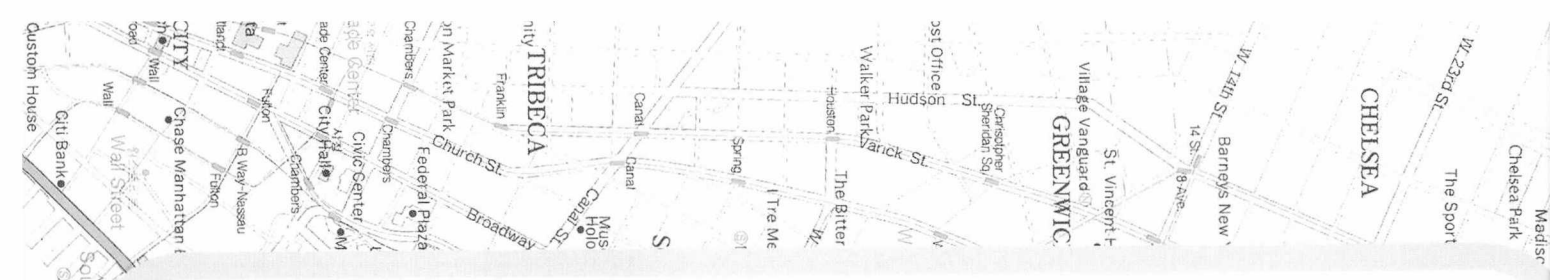
몇몇 잉크 회사들은 장기간의 컬러 품질 서비스를 경험하는 동안 피그먼트 제품으로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각자의 종합 컬러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아주 잘 갖추고 있다.

도요잉크사는 유럽에서 지역 매엽 오프셋 시장으로 잉크 사업을 확대하는 컬러 규격 창조자로서 오랜 평판을 누려왔다.

도요잉크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지역 시장에서 피그먼트를 만들어왔지만 주요 피그먼트 고객들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피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선케미컬, 플린트그룹, 후버그 등과 같은 유럽의 많은 거대 잉크 제조업체들이 스스로 피그먼트 사업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포기했다.

향후 몇 개월 이내에, 도요잉크는 유럽에 칼레이도(Kaleido) 오프셋 잉크군을 소개할 계획이다. 칼레이도는 확장된 CMYK의 4개 공정 컬러 범위와 RGB의 3색 모델이 서로 가까우며 CMYK 중심의 매엽 인쇄기와 RGB 기반의 프리프레스 장비의 차이를 상쇄한다. 그러나 칼레이도는 컬러 측정 장비 및 규격의 도움 없이는 알맞게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미 컬러매니지먼트의 커다란 브랜드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도요컬러파인더(Toyo Color Finder)는 Adobe, Quark과 같은 글로벌 그래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최상의 컬러 매칭 시스템이다.

도요잉크유럽의 수석 판매 매니저인 피터 비어텐



“ 최근, 선케미컬은 대형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기존의 수천에 달하는 컬러 종류를 약 1천개까지 줄임으로써 포장인쇄에 사용되는 스폿 컬러의 활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런 후 선케미컬은 모든 공급망에 사용될 수 있는 컬러 규격을 만들었다. ”

(Peter Beerten)은 “팬톤이 북아메리카 및 유럽 지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컬러 규격으로 잘 알려졌다”라며 “우리는 컬러 규격에서 80여년의 경험을 갖고 있고 유럽 그래픽 산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컬러 전문성이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컬러파인더시스템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1050개의 다른 컬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잉크 뿐만 아니라 피그먼트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리프레스를 거쳐 파인널 프린트까지 효과적인 컬러 매칭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계 어디서나 같은 컬러 품질 실현

선케미컬은 글로벌 브랜드 소유자들이 포장인쇄 스폿 컬러 관리를 위한 시스템 효율성 업그레이드를 도와준다. 이는 다른 인쇄물의 잉크 성능과 같은 부문의 전문성이 있어 잉크 색터 밖의 컬러 품질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는 명백한 장점이다.

선케미컬의 유럽 컬러매니지먼트 담당 제너럴 매니저인 패트리스 오렌티(Patrice Aurenty)는 “우리는 잉크와

피그먼트를 통해 컬러를 만들고 다른 인쇄 공정들과 인쇄용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단지 숫자에 대해서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인쇄문제는 진정 컬러와 함께 발생한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접근법이 있기 때문에 컬러매니지먼트 영역에서 다른 잉크 제조업체들보다 더욱 많이 작업할 수 있다. 우리 브랜드 소유자의 브로셔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등 어디에서 인쇄되던 간에 동등한 컬러 품질을 갖도록 확실히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케미컬은 대형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기존의 수천에 달하는 컬러 종류를 약 1천개까지 줄임으로써 포장인쇄에 사용되는 스폿 컬러의 활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런 후 선케미컬은 다른 인쇄 공정들과 인쇄용지들에 따라 각각의 컬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공급망에 사용될 수 있는 컬러 규격을 만들었다.

오렌티 매니저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 브랜드 소유자의 팔레트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각각의 컬러 표준화 데이터는 워크플로 망에 따라 소통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잘못된 컬러가 훨씬 감소했으며 재작업 횟수도 극소수에 불과했고 제품 런칭의 속도는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케미컬은 공정 컬러를 위한 새로운 규격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국제규격위원회에 알렸다.

선케미컬의 유럽 컬러 매니지먼트 기술 매니저인 앤디 하다웨이(Andy Hadaway)는 “우리는 그들이 소개하길 원하는 규격의 한 부분이 잉크와 피그먼트의 속성 때문에 달성될 수 없음을 관련 위원회에 알렸다”면서 “그 위원회는 CMYK 컬러의 동등한 양이 중성색을 형성하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피그먼트 산업이 이러한 가능성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려줘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잉크 회사들은 각각의 잉크, 용지들로부터 컬러 품질 생성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잉크업체들에게 컬러매니지먼트 시장의 독특한 지위를 부여한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